

# 공적 PF보증 수도권 쏠림...전남광주 ‘소외’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고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보증마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남광주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보증액의 65%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린 반면 전남광주지역에 배정된 보증액은 전체의 2%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 여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PF보증 지역별·시공수위별 발급 실적'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발급된 공적 PF보증은 총 228건, 23조78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지역에 지원된 보증액은 광주 2조2500억원, 전남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보증액을 합하면 2조5310억원으로 전체의 약 10.6% 수준이다.

반면 수도권에 지원된 보증액은 15조4051억원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는 90건, 10조9580억원으로 전체 보증액의 46.1%를 가져갔다. 경기도 한 곳에 전체 보증액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셈이다.

반면 광주는 6건, 2조 2250억원, 전남은 7건, 2810억원에 그치면서 경기도 보증액과 비교하면 약 21분의 1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지역의 보증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전체 보증액 65% 수도권에 집중...경기도만 10조 넘어  
“지역 건설업체 침체 우려, 불균형 완화 대책 마련해야”

광주지역은 2024년 600억원에서 2025년 1900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7월까지 2조원을 기록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350억원, 630억원, 183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건설사 규모에 따른 보증 편중도 뚜렷했다.

사공능력평가 1~20위 건설사는 6조 2945억원, 21~40위 건설사는 9조1335억원을 지원받았다. 상위 40위권 건설사가 전체 보증액의 64.9%인 15조4280억

원을 차지했다.

공적 PF보증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보증 실적이 수도권과 상위권 건설사에 집중되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건설사와 지역 주택사업장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지방은 주택사업의 수익성과 분양 전망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질 경우 사업

지역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HUG는 지방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건설사 대상 특별보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 이후 보증사고 없이 누적 대위변제를 0.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보증액에서 전남광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대에 머물면서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적 보증이 단순히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대형 건설사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건설경기와 주택 공급 여건을 고려해 균형 있게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기왕 의원은 공적 PF보증이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편중되고 있다며 희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 주택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PF 보증이 사업성이 높고 회수가 용이한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편중 집행되면서, 정작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꼬집으며 “HUG는 단순 건전성 지표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밀한 육척 가리기를 거쳐 희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 주택사업장에 대한 보증 문턱을 현실화해야 한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건설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 안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전남광주 벤처기업, AI·미래차 전환서 성장 활로 찾는다

전남광주 중소·벤처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나섰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광주산학융합원은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6 전남광주혁신벤처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전남광주의 중소·벤처기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26년 자율주행차 부품광주 특화단지 3차 리더스포럼’과 동시에 진행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유관기관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특강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공급망 재편에 따른 지역 기업의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인 ‘AIMO CITY’를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로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AIMO CITY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산업혁신 클러스터와 대규모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소개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광주산학융합원은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6 전남광주혁신벤처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등 3개 기관 혁신포럼  
실증·투자 연계부터 영업비밀 보호·복지 공유

했다.

특강에서는 이러한 산업 기반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보·자금·인력·시장 등 네 분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위한 실행 과제로 미래차 전환 원스톱 창구 마련, 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방 바우처, 실증 참여 쿼터제, 공공조달 연계, 전환 투자 연계 등 다섯 가지가 제안됐다. 벤처업계 협력 방안으로는 실증 수요 연결과 공

동 기업설명회(IR)·투자설명회, 지역 실증 및 거점 이전 등이 제시됐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영업비밀 보호 방안도 다뤄졌다.

전남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보호를 주제로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와 함께 퇴직자, 협력업체, 내부 직원 등을 통한 기술 유출 경로를 사례 중

심으로 안내했다.

기업 대표가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는 영업비밀 목록 작성, 접근 권한 설정, 비밀 표시, 계약서 작성, 퇴직 관리 등 다섯 가지가 제시됐다. 특히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무상 복지물 서비스 ‘투게더웰’도 소개됐다. 도입 비용 없이 KTX·SRT 할인과 종합건강검진, 휴양시설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콘진원, 파리에 K-패션 글로벌 경쟁력 이끌어  
본봄·아스파라거스 참여...패션쇼와 영화 결합한 무대 공개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독창적인 디자인과 영상 콘텐츠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며 글로벌 패션 시장 공략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프랑스 파리 현대미술관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에서 ‘컨선크리아 2027 S/S’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컨선크리아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계 주요 패션위크와 연계해 한국 패션의 독창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본봄 디자이너의 ‘본봄(BONBOM)’과 이명제 디자이너의 ‘아스파라거스(ASPARAGUS)’가 참여했다.

패션쇼에 앞서 두 브랜드의 정체성과 배우 김민하와 모델 홍태준이 출연했다. 영화적 미장센과 서사를 통해 두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을 풀어내면서 패션과 영상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선보였다.

이어 진행된 패션쇼에서 본봄은 상반된 요소를 결합하는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 철학을 드러냈다. 끈에 주름을 적용한 대표 디자인과 정면·측면의 대비, 성기개 짠 니트 소재 등을 활용해 서로 다른 요소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표현했다.

이번 시즌 처음 컨선크리아에 참여한 아스파라거스는 남성성과 여성성, 보호와 노출 등 대립하는 요소의 공존에 주목했다. 해체적인 형태와 비대칭 구조, 실험적인 세부 디자인을 통해 불안정하면서도 독특한 아름다움을 담았다.

행사에는 컨선크리아 공식 앰배서더인 K팝 그룹 몬스타엑스의 서누와 형원, 태국 배우 지 프록 파닉(Zee Pruk Panich) 등 글로벌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다.

글로벌 패션 매거진 ‘GQ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줄리앙 랑베이는 패션 필름 ‘산책하는 법’에 대해 “한국 영화 특유의 연출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두 브랜드의 컬렉션을 새롭게 독창적인 방식으로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환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아카데미홀 대관

-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